

윤병태 시장 “500만 나주관광,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도약”

●민선 8기 2주년

글로벌 직류산업특구 지정...에너지신산업 거점 ‘우뚝’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등 ‘명품교육도시’ 기반 마련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2년 동안 나주를 빛낸 10대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10대 성과는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사업 ▲나주시 최초 시도 사업 ▲핵심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공모사업 등이다.

나주시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에너지신산업 거점으로 우뚝 서고 있다. 오는 2027년까

지 에너지 산·학·연 기관이 집적화된 나주 혁신산단 일원에 직류기반 전력망 실증을 위한 상용실험장(테스트베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은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동산대 등 우수한 교육 역량을 갖춘 물적·인적 자원과 특성화고교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으로 맞춤형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도내 최초 평생학습 바우처



윤병태 나주시장이 전남 최초로 추진한 부르면 오면 ‘나주콜버스’에 탑승해 인사를 건네고 있다. (나주시 제공)

인 ‘나주(愛)배움바우처’를 신설했다. 1인당 15만원씩 바우처 전용 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2년간 5천500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이는 시민들의 문화향유는 물론, 지역 평생학습을 운영하

는 기관·단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나주산물의 가치도 높였다. 지난 6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105억원을 확

보했다. 전국 최초의 센터 건립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 거점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주시는 나주배, 나주쌀 등 우수 농특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보에 주력하며 지금까지 미국,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등 현지 유통업체와 373억원 규모의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수출 규모 또한 2022년 800억원대에서 2023년 1천억원대로 증가했다. 특히 나주 시장 인증 품질보증제를 적용한 고품질 배인 ‘천년이슬나주배’를 출시해 글로벌 명품 과일 명성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영농 인력 확보에도 힘썼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22년 32명에서 2024년 상반기 52명으로 대폭 증가하며 2년간 영농 인건비 약 87억원을 절감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0원 주택’ 보급

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가속화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전남 최초로 약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전남 최초로 부르면 오는 ‘나주콜버스’를 안착했다.

‘나주콜버스’는 시범 운영했던 2023년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월평균 이용객이 9천600여명으로, 이전 공공형 버스 이용객 2천200여명과 비교해 약 4배, 이용률은 300% 증가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윤병태 시장은 “민선 8기 남은 2년 동안 나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철저히 준비하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500만 나주 관광시대”를 준비하고,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로 도약하는 길에 시민들의 적극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

강진 육아수당 정책 실시 후 출생아 수 두배 ‘경충’

2022년비 출생아 증가율 106%...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2위

강진군이 MZ세대 수요에 딱 맞는 현금성 육아수당 정책을 실시하며 2022년 대비 출생아 수 2배 증가로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반기 강진군 출생아 수는 93명으로 이는 2022년 1년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 93명과 같은 숫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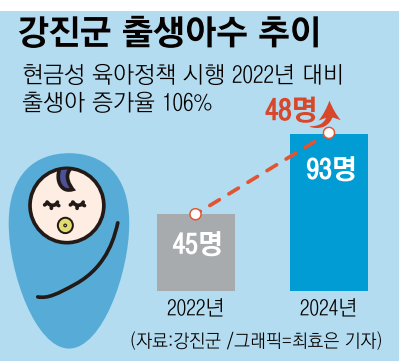
육아수당 시행 연도인 2022년 상반기 출생아 45명과 비교해 올해 같은 기간엔 48명이 늘어 무려 106.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23년 같은 기간 출생아 82명과 비교해도 11명이 늘어 13.4%의 증

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 비율이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75%를 차지해 육아수당이 지역 간 이동이 아닌 관내 거주자의 출산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실질적 인구 순증가임을 보여 주고 있다.

육아수당은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말 기준, 누적 3천218명, 20억8천만원이 지급됐다.

8개월 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강진 육아수당은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출생



아 수 93명에서 2023년 출생아 수 154명으로 65.6%가 증가해 2023년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0.72명) 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강진군은 아이키우기 좋

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맘편한센터, 목재 놀이터, 강진만 생태체험관 등 놀이시설 확충, 강진군육아지원센터,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등 돌봄 강화, 교육발전특구 지정, 빈집 리모델링 등 교육을 비롯한 주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군 육아수당과 같은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서 인준된 우수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채택해 국가적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김 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경쟁력 강화”

명현관 해남군수 정례회의서 모색...기후변화대응 전략 시급

해남군이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농수산업의 미래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발전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사진) 해남군수는 지난 8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해남농수산업 미래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김산업 진흥에 전 부서가 협업해 발전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물김 생산지이자 100여개소에 이르는 최대 가공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해남김은 지난해 최초로 물김 위판액 1천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인 1천138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 황산면의 친환경 지주식 유기인종 김에 대한 브랜드 개발과 가공에도 착수했다.

김은 지난해 전남도 수산물 수출품 1위로, 지난해 수출 1조원을 달성하며 김은 반도체라 불리며 수출 효과 증폭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일본 등지의 김 생산량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후변화대응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군은 이와 관련 지난해 해양수산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 오는 2027년까지 수산양식업과 관련된 기자재의 생산과 유통, 수출, 연구개발 등을 집적화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전례 없이 전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는 점에서 선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무안군 친환경 소금인 '더맑은 소금'이 최근 에코솔트㈜에서 '말레이시아 수출 1천톤 선적 개시' 기념식을 열고 본격 수출길에 올랐다. (무안군 제공)

무안 에코솔트, 1천t 말레이시아 첫 수출

55억 규모...전 세계 할랄 시장 수출 교두보 마련

무안군 몽탄특화농공단지에서 위치한 에코솔트㈜가 해외 첫 수출에 성공했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에코솔트㈜에서 ‘말레이시아 수출 1천t 선적 개시’ 기념식을 개최하고 친환경 소금인 ‘더맑은 소금’을 본격 수출하기 시작했다.

기념식에는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한 염은선 에코솔트㈜ 대표, 전남대 산학협력단, 김기주 몽탄농협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솔트㈜의 첫 수출을 축하했다.

에코솔트㈜는 이슬람 지역인 말레이

시아로의 수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6월 말레이시아 자킴(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았다.

자킴은 46개국에 별도의 승인 없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할랄 허브로서 앞으로 에코솔트㈜는 동남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의 무슬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K-푸드 시장 공략의 길을 열게 됐다.

염은선 에코솔트㈜ 대표는 “앞으로 2년에 걸쳐 말레이시아에 ‘더맑은 소금’ 1천여톤을 수출하게 됐다”며 “무슬

림 시장은 생각보다 거대하고 안정적이며 오늘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세계의 무슬림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400만 달러(약 55억원)에 이르는 첫 수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분양률 35%에 불과한 몽탄특화농공단지 분양에도 최선을 다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지역기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삼호 기자

영광군, 리튬전지 제조공장 안전점검

지속 모니터링...군민 불안 해소

영광군은 “최근 리튬전지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등 화재 취약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에는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

행을 비롯한 공무원, 영광소방서, 민간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했다.

점검 내용은 ▲비상연락망 구축 ▲중요 시설 안전교육실시 ▲소방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시설물(건축)분야의 건축자재(불연재) 사용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고, 석유화학 사업체 등에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진도서 축구계 전설 허정무 감독 흉상 제막

한국 축구계의 전설 허정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의 흉상이 고향인 진도군 공설운동장 소공원에 세워졌다.

9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김희수 진도군수를 비롯해 박지원 국회의원,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축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허정무 감독 흉상 제막식’이 진행됐다. (사진)

허정무 감독은 1958년 진도 출생으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사상 최초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



했다.

허정무 감독은 “이러한 행사를 개최해 준 진도군과 관계육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진도군 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 “공정·투명 하반기 정기인사 요구”

후보자 순위 명부 서열 중심·경력 등 안배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이 목포시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요구했다.

9일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목포시가 지난 민선 8기 여러 차례

의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잦은 부서 이동, 회전문 인사, 측근 인사 등의 잡음이 있었던 만큼 잘못된 점은 계속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잘못된 점은 차근차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시공무원노조는 ▲후보자 순위 명부의 서열 중심·경력 등을 안배한 승진 인사 ▲직급·경력·나이 비율 등 적대적소에 균형 있는 전보 인사 ▲상·하반기 정기인사일 정례화 ▲소의 직렬의 처우개선을 통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저연차 공무원 이직

·퇴사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위라벨 확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다.

또 노조는 기타 요구사항으로 전남도 진입 시험에 대한 합리화 방안과 일방적인 전남도 낙하산 인사(4급) 저지, 전남도 및 중앙부처와의 인사 교류(1대1) 확대를 요구했다.

【목포=정해선 기자